

막바지 봉축준비 '박차'

11일 서울시청 앞 점등...각 종단 불거리·체험마당 다채

부처님 오신날을 보름여 앞두고 올 연등축제에서 새롭게 선보일 장엄등과 봉축행사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바쁜 손놀림을 계속해 온 각 종단들도 막바지 준비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사실상 봉축행사는 서울시청 앞 광장 봉축장엄등이 점등되는 5월 11일부터 시작된다. 이때부터 봉축 분위기를 돋우기 위한 각종 행사가 열리기 때문이다. 종단에서는 현재 조계종과 태고종, 천태종, 진각종, 총지종, 보문종 등이 봉축위원회에 참가를 신청해 놓고 있다.

지난해 범패 시연 등 불교 전통문화를 알리는데 주력했던 태고종은 '참어와 나눔'을 주제로 소아암 어린이에 초점을 맞춰 봉축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이의 일환으로 태고종은 지하철 포교단체인 풍경소리와 공동으로 15일부터 30일까지 서울 잠실 민속박물관에서 '소아암 어린이를 위한 자비의 등 달기' 행사를 벌인다. 이 기간동안 서울 시내를 누빌 봉축버스도 태고종립 동방불교대학 불교미술과에서 작성을 맡았다. 23일 열리는 연등축제에서는 부처님 법을 나누는 자리인 영산회상을 상징한 등(燈)과 아기부처님 탄생불 모양의 등, 풍등, 만월등을 선보인다. 봉축법요식은 26일 오후 7시 서울 신촌 봉원사에서 봉행할 예정이다.

천태종은 '국민화합'과 '부처님 찬탄'을 주제로 삼았다. 육백공양등, 경천사지 10층석탑등, 태극기 등, 동자승등, 용등, 코끼리등, 잉어등, 법고등 등 연등축제에 선보일 50여종의 등은 주제를 돋보이게 한다. 뿐만 아니라 연등축제 행사장에는 객석 1천4백여 개를 예약해 놓았지만 실제 참가 인원은 3천명에 달할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23일 거리문화축제에서는 천태종부처님오신날 기념행사인 '부처님 오신날'을 주제로 마야꽃아주기 캠페인과 용천역 참사 피해 어린이돕기 캠페인을 벌인다. 봉축법



부처님 오신날을 앞두고 봉축행사를 준비하는 각 종단의 손놀림이 빨라졌다. 사진은 진각종 중무원과 불자들이 장엄등을 제작하는 모습.

요식은 26일 오후 10시 구인사에서 열린다.

진각종은 올 연등축제에서 밀교 알리기에 총력을 기울인다. 이를 위해 진각종은 밀교성지 티베트 포탈라궁을 형상화한 등을 비롯해 오불(五佛)의 상징세인 공작명왕등, 팔각등에 팔각상 문양 등 밀교와 진각종을 상징하는 문양을 새겨 넣었다. 동대문야구장에서 진행되는 식전행사와 종로 제동행진에서는 종립 전신여고 학생들의 단체춤과 타악 퍼포먼스 아단법식의 공연을 선보인다. 우정국로 거리문화축제에서는 진각복지재단과 진각종 전국청년회가 북녘동포 돕기 모금과 종단 홍보를 배포활동을 펼친다.

총지종도 밀교와 종단 상징물을 등으로 만들고

있다. 총지종은 5개월여에 걸쳐 지권인(智拳印)과 만다라의 중대팔엽원을 형상화한 장엄등을 제작했고, 지금은 개인등에 불보살을 새기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종립 동해중 사물놀이패와 연희단이 제동행진의 분위기를 고조시킬 예정이다. 보문종은 팡상도를 그린 팔각등을 준비, 3백여 명의 스님과 신도들이 연등축제에 참가한다.

태고종 봉축실무단장 법현 스님은 "다양한 불거리와 체험마당을 제공해 부처님 오신날을 온 국민의 축제로 승화시키기 위해 모든 종단이 오랜 기간 준비해왔다"며 "연등축제를 함께 즐기면서 부처님 오신 의미를 되새기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병영 기자 bypark@buddhapia.com

포교사 고시 11월21일 서울·LA 등 8개 지역에서

올해 조계종 포교사고시가 11월 21일 전국 8개 지역에서 동시에 실시될 예정이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도영)은 4월 28일 조계사 소설법전에서 열린 '신도전문교육기관 대표자 회의'에서 고시일정을 잠정적으로 결정하고, 정확한 고시일정과 세부계획은 오는 9월에 확정하기로 했다. 전문적 포교역량을 갖춘 인재를 선발, 양성하기 위한 조계종 포교사 고시는 서울, 부산, 대전, 미국 LA 등 8개 지역에서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3시간여 동안 진행된다.

포교원은 '신도전문교육 시행령'의 유효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종단이 인정한 불교대학의 졸업자만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응시자 자격요건을 대폭 강화했다.

또한 기존의 교구부사 주지 스님, 신도·포교단체 등의 추천 상한선 10%를 폐지함으로써 추천재량을 확대, 불교대학을 졸업하지 않더라도 전문적인 불교지식과 실무에 능숙한 이들의 등용문을 넓힐 계획이 다.

김은경 기자

울릉도에 천태종 도량 건립 16일 해도사 불교회관 기공

울릉도에 천태종과 불교를 알릴 불교회관이 들어선다.

천태종(총무원장 운택)은 5월 16일 오전 11시 해도사 불교회관 및 해수관음보살 입상 기공식을 개최한다. 이날 기공식에는 천태종 총무원장 운택 스님을 비롯해 해도사 주지 비봉 스님, 최영태 신도회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2005년 12월 완공 예정인 해도사 불교회관은 지상 2층, 연면적 1백평 규모로, 울릉도 울릉읍 동동에 건립된다. 특히 내부에는 종무소, 신도회 사무실 등 사무공간과 요사, 교양강당이 들어서 울릉도 불자들을 위한 신형·문화공간으로 거듭난다.

해도사는 이 기간동안 해수관음보살 입상과 사리탑, 조각을 새로 마련해 도량의 면모를 갖추게 예정이다. (054791-2471)

한편 천태종은 5월 12일 오전 10시 2001년부터 4년여에 걸쳐 불사를 진행해 온 청주 명장사주지 화산의 낙성법회를 봉행한다. 명장사는 지하 2층, 지상 3층, 연면적 1천3백평 규모다. (0431223-0322)

박병영 기자



본원종 통일기원 수록제

본원종(총무원장 대화)은 최근 충주 중앙탑 광장에서 남북통일과 국제민간을 기원하는 '방생 및 수륙 고혼천도 대법회'를 봉행했다. 영산재와 방생의 식 등으로 진행된 이날 법회에서 총무원장 대화 스님은 "내 가족과 이웃, 나아가 국가와 민족이 모두 잘 사는 세상을 만들어 가는데 불자들이 앞장서 나가라"고 당부했다. 이날 법회에는 중앙종회 의장 대운 스님을 비롯해 전국 200여 사찰에서 1천여명이 참석했다.



법상종 잠보라마 스님 초청법회

법상종(총무원장 학산)은 4월 25일 안산 대부남동 대선사에서 티베트의 잠보라마 스님 초청 국제 보살계 수계 및 마정수기 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총무원장 학산 스님, 중앙종회 의장 도영 스님 등 사부대중 1천여명이 참석했다. 총무원장 학산 스님은 봉행사를 통해 "계는 받는 것보다 실천하는 것이 본질"이라며 "참불자의 삶을 살아가라"고 당부했다. 법회 후에는 법배 의식과 전통 학춤 공연도 열렸다. (02)491-1624

종단소식

15일 수성 종령 49재

총지종은 5월 15일 오후 2시 대구 개천사에서 제8대 종령을 지낸 수성 대종사의 49재를 봉행한다. 이날 49재에는 우송 통리원장을 비롯해 종단 간부, 기로스승 등 5백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수성 대종사는 1972년 총지종 창종과 함께 대구 개천사에서 교회를 시작한 이래 중앙종회의 의장, 종립 동해중학교 이사장 등 종단의 요직을 거치면서 총지종이 반석에 오르는데 일익을 담당했다.

청소년지도자 워크숍

(사)진각종 비로자나청소년협의회는 5월 1일 법원사무국에서 청소년지도자 워크숍을 개최했다. '참여하는 세상, 함께 하는 청소년'을 주제로 열린 이날 워크숍은 30여 청소년지도자가 참석한 가운데 소양교육과 활동안내 등으로 진행됐다.

종헌준법·홍보책 발간

미륵종(총무원장 송정)은 4월 27일 열린 임시중앙종회에서 종헌준법을 담은 책자와 홍보 책자

를 발간, 종단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기로 결의했다. 또 종단 및 소속 사찰과 관련된 각종 소송 등 법률적인 문제에 대한 자문을 얻기 위해 종단 고문변호사를 위촉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이날 종회에서는 한일 불교문화교류대회 참가와 수익사업인 보경향공예행사 운영 등 종단 현안을 논의했다.

청소년지도자 워크숍은 (사)진각종 비로자나청소년협의회는 5월 1일 법원사무국에서 청소년지도자 워크숍을 개최했다. '참여하는 세상, 함께 하는 청소년'을 주제로 열린 이날 워크숍은 30여 청소년지도자가 참석한 가운데 소양교육과 활동안내 등으로 진행됐다.

자원봉사로 포교합니다

진각·일승종 봉사단 결성

진각종과 일승종의 불자들이 자원봉사에 나섰다.

진각종 신도회인 총공강회 부산·경남지부(지부장 류도형)는 신교도들의 자발적인 자원봉사 참여와 자원봉사를 통한 교화활성화를 위해 4월 24일 부산 범석심인당에서 금강 자원봉사단을 발족시켰다. 금강자원봉사단 단장에는 강정남 정제심인당 각자(남신도), 부단장에는 소지인(부산 남도심인당), 대행(부산 명문심인당), 청해(부산 영신심인당) 보살



5월4일 창립한 일승종 자원봉사단.

이 각각 선출됐다.

부산·경남지역 신교도 50여 명으로 구성된 금강자원봉사단은 앞으로 경주 산내연수원과 진각복지재단 산하 부산 낙동종합사회복지관 등 진각종 산하시설의 각종 행사와 활

동을 지원, 자원봉사를 통한 적극적인 포교에 나설 예정이다.

일승종도 기존의 삼봉사 노인복지봉사단을 종단차원의 승·재가 자원봉사단으로 확대, 창립했다. 일승종은 5월 4일 구리시청 시청각실에서 자원봉사단 결성식을 열고 단장에 혜정 스님(일승종 총무원장)을 추대했다. 자원봉사단은 스님 40여명, 재가불자 40여명 등 총 80여명으로 구성됐다.

앞으로 일승종 자원봉사단은 구리지역의 불우이웃과 소년소녀 가장 등기를 비롯해 환경정화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류도형 총공강회 부산·경남지부장은 "효과적인 포교로 이어질 수 있도록 불자들의 자원봉사활동을 체계

적으로 연결하는 역할도 담당할 것"이라며 "불교계의 자원봉사 활동이 보다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총지종 종령 17일 선출 서울 총지사서 승단총회

총지종(총무원장 우승)은 새 종령 선출을 위한 승단총회를 5월 17일 오후 3시 서울 총지사서 열기로 했다. 총지종은 5월 4일 열린 원의회에서 이같이 결의, 공고했다.

승단총회에서는 종령 선출 외에도 부처님 오신날 봉축행사 준비사항 중간보고와 기타 현안 협의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박병영 기자

무료진단과 공개강좌 개시

인간이 질환 없이 살 수는 없을까?

한국 전통 기운미래 연구학회에서는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새로운 건강관리 운동에 소중한 당신을 초대합니다.

“물품을 절대 판매하지 않습니다.”

◎ 요즘 한창 성황중인 임상 흥체학은 무엇인가? ◎

“최첨단 눈동공에서 찾을 수 있는 건강 진단 방식”

현대 중앙병원 대체의학 연구소에서 왜 연구를 지속할까?

카이스트 공중보건학과 팔상 체질의학 창시자인 권도원 박사님의 체질 진단 공동개발 프로젝트 개발

- 자연치유의 학에 시작, 지구촌 자연의학 바람 거세다. (중앙일보 2004년 1월 25일자 기제)
- 자연치유 영양요법은 공해시대에 사는 우리에게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강사: 경희대출, 유니피아 홍체 자연치유학회 전문위원, 김코리아 홍체 강의 중)

전철 5호선과 7호선 환승역 군자 3번 출구 조흥은행 옆
선착순 20명 제한 접수 / 연락처 02)454-3368

사주학 무료강좌

매주 화요일부터 수, 목, 금,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

▶ 규봉선생과 소인선생 직강 (현재 방송국에서 강의 중. iTV, SBS 출연함) ◀

평생 직업! 오후 2시부터는 특강반 모집

오행의 기초부터 완벽하게 사주, 작명, 인상학, 궁합, 택일, 이론 및 실제 감정 완전 정복(자격증, 취업보장) "ARS 대동정보통신에서 후원"

사단법인: 한국 기운미래 연구학회

전철 5호선과 7호선 환승역 군자 3번 출구 조흥은행 옆
선착순 20명 제한 접수 / 연락처 02)454-3369

☆부처님 오신 날 특별행사☆

불 신력사 + 부석사 + 청량사 축

삼사잡 순례여행

신력사 여주에서 동북쪽으로 약 25km 정도 떨어진 남한강 상류 용미산 기슭에 있는 오래된 전통 사찰로서 신라시대 원효대사가 창건한 것으로 전하고 있다. 이 절은 강이 굽, 암반 위에 벽돌로 쌓은 다층 전탑이 있어서, 고려 때부터 벽절이라고도 불렀다.

부석사 신라 문무왕 16년(676년) 애동 화엄종의 종조인 의상대사가 왕명으로 창건한 사찰이다. 의상대사가 당나라에 유학하고 있을 때 당 고종의 신라 침략 소식을 듣고 이를 왕에게 알리고 그가 뒤늦게 화엄교를 펴기 위해 귀국하여 이 절을 창건, 우리나라 화엄사상의 발원지가 되었다.

청량사 신라(문무왕 3년(663년)에 원효대사가 세운 절로 법운은 지방유명문화재 47호인 청량사 유리보전이 보존되어 있다. 이 청량사는 풍수지리학상 길지, 중의 길지로 꼽히는데 육옥봉(12.봉우리)이, 연꽃암처럼, 청량사를 둘러싸고 있고 이 청량사는 연꽃의 수종지이다.

■ 날짜: 2004년 5월 1일 ~ 5월 30일까지 (매일출발)

■ 코스: 서울-여주신력사-영주부석사-봉화청량사-서울

■ 회비: 37,000원 [왕복교통비, 조식, 중식, 석식, 입장료, 봉사료 일체포함]

※ 석가탄신일은 가은 봉암사로...

■ 출발시간

07:00 영등포 경방빌 백화점 앞

07:30 서울역 9번출구 대우빌딩 앞

08:00 잠실역 3번출구 너구리상 앞

www.dongbaektour.co.kr
인터넷주소창에 '동백여행사' 라고 치세요.
친목단체합참 / 주야 휴일 접수함 ※특전: 동백여행 10% DC

Dong Baek
동백관광여행사

예약문의 : (02)2233-3500
계좌번호: 농협 046-02-119148 [동백여행사]